

블랑팡과 프헤가뜨 아일랜드 프라이빗, 함께 환경 보호 노력을 보여주는 단편 영화를 선보이다

2018년 이래 블랑팡과 프헤가뜨 아일랜드 프라이빗(Fregate Island Private)은 섬 주변의 해양 환경을 연구, 복원, 보존하는 데 함께 힘을 모아왔다. Coralive.org 와 BlueNomads.org 는 그린 아일랜드 재단(Green Islands Foundation), 세이셸 보존 & 기후 적응 신탁(Seychelles Conservation and Climate Adaptation Trust)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현장 프로젝트를 이끌었다.

프헤가뜨 섬은 세이셸 안쪽에 위치한 화강암 섬이다. 이곳에는 청정 자연이 에워싼, 3km² 내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는 17채 빌라로 이뤄진 프헤가뜨 아일랜드 프라이빗 럭셔리 리조트가 자리하고 있다. 세이셸의 작은 갈라파고스로 알려진 이 섬은 해당 지역의 환경 보존을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왔다. 맥파이 로빈(Magpie Robin)을 멸종으로부터 구해냈고, 알다브라 육지거북(Aldabra tortoise) 서식지를 수십 개에서 3500개까지 늘리는 데 일조했다. 이처럼 육지에서 이뤄낸 성공 이후 프헤가뜨 섬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해양 환경, 특히 섬을 에워싼 산호초 속 생물 분포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장기적으로 추진 중인 오션 커미트먼트(Ocean Commitment)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블랑팡은 2018년 프헤가뜨 아일랜드 프라이빗, Coralive.org 와 협업해 프헤가뜨 섬에서 산호초 복원 프로젝트 실험에 착수했다. 거센 물살로 깨진 산호 조각(기회를 얻은 산호) 800개를 수심 5~7m 사이에 위치한 8개의 인공 구조물에 이식한 것이다. 구조물 중 4개는 MAT(Mineral Accretion Technology) 기술을 적용했는데, 해수 사이로 흘러도 안전할 정도로 낮은 전류를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기술은 용해된 무기질이 구조물 위에서 결정체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자연적으로 산호초와 열대 해변의 하얀 모래를 이루는 그것과 상당히 유사한 하얀 석회석으로 변하게 해준다. 나머지 구조물 4개는 대조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기 처리하지 않았다. 기존 기술과 비교해 MAT가 어떤 효과를 내는지 측정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이기도 한 이 프로젝트는 소중한 연구 자료를 제공한다.

프헤가뜨 섬 주위의 해양 생물에 대해 더욱 자세히 연구하기 위해 2019년 블랑팡과 Coralive.org 는 BlueNomads.org 에 속한 프헤가뜨 아일랜드 프라이빗, 그린 아일랜드 재단, 세이셸 대학, 세이셸 보존 & 기후 적응 신탁과 함께 산호초의 생태 다양성에 대한 기준선을 확립했다. 700헥타르가 넘는 해저를 최첨단 기술로 촬영해 산호의 상태, 경도, 해저에 모여 있는 형태 등에 대해 기록했다. 이렇게 취합한 이미지를 모자이크 처리해 프헤가뜨를 둘러싼 산호, 모래, 바위, 파편 등의 세밀한 3D 해저 생태 지도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섬 주변 해양을 장기적으로 관찰하는 프로그램의 기본 자료로 이 데이터를 활용해

암초 어류(reef fish)와 산호 부락의 구조 변화를 매해 비교 및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 목표는 섬 주변으로 새로운 해양 보호 구역을 만들어내자는 화두를 이끌어내는 것이기도 하다.

블랑팡과 프헤가뜨 아일랜드 프라이빗은 획기적인 세이셸 블루 본드(Blue Bond)가 후원하고 공동 투자하는 첫 세부적인 프로젝트 중 하나인 생태 다양성 기준 평가를 위해 그린 아일랜드 재단, 세이셸 보존 & 기후 적응 신탁과 협업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 이 두 기관이 Coralive.org 와 BlueNomads.org 가 성취한 현장에서의 작업을 기리며 그들의 노력을 담은 단편 영화를 소개한다.

세이셸에서의 블랑팡 오션 커미트먼트(Blancpain Ocean Commitment in the Seychelles)

1735년 설립 이래 선구적 정신을 보여준 블랑팡과 바다와의 역사적인 연결고리는 195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바로 세계 최초의 모던 다이빙 워치 피프티 패덤즈의 탄생이 그것이다. 세이셸과 블랑팡과의 인연은 블랑팡이 내셔널 지오그래픽 프리스틴 씨즈(Pristine Seas)의 창립 파트너로서 세이셸 섬의 과학 원정을 후원한 2015년 시작되었다. 그 결과 세이셸 정부를 위한 세부 연구 보고서가 완성되었는데, 덕분에 최근 해당 국가의 배타적 경제 수역(Exclusive Economic Zone)의 30%인 410,000km² 까지 해양 보호 구역이 확대될 수 있었다. 월드 오션 써밋(World Ocean Summit)의 창립 파트너인 이코노미스트와 블랑팡은 해양 보존을 위한 세계 최초의 채무 자금 재조달(debt refinancing) 프로젝트인 세이셸 블루 본드(Seychelles Blue Bond)에 오션 이노베이션 챌린지(Ocean Innovation Challenge)를 수여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2천 160만 달러 외채를 국내 자금 조달로 맞바꾸면서 30% 목표 달성을 포함한 해양 공간 개발 등의 장기적인 해양 보존과 노력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프헤가뜨 아일랜드 프라이빗(Fregate Island Private)

세이셸의 사파이어빛 바다에 위치한 프헤가뜨 아일랜드 프라이빗은 섬의 육지 및 해양 환경, 생태종을 복원하고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보호 구역이다. 프헤가뜨 아일랜드 프라이빗에 머무는 게스트들은 섬의 보존 팀과 함께 육지와 바다 모두에서 실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도 있다.

파트너(Partners)

Coralive.org는 스위스에 기반을 둔 환경 기관으로 바다에 지대한 관심을 지니고 있으며, 해양 생태계 보호, 관리, 복원을 돕기 위해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다.

BlueNomads.org Survey Philippines은 해양 보존과 청색 경제(blue economy)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데 있어 상업적 전략을 펴기 위해 2016년 설립된 사회적 기업이다.

세이셸 보존 & 기후 적응 신탁(SeyCCAT)은 독립적인 개인 신탁 형태로 세이셸 채무 교환으로 충당된 블루 보조금을 해양 보존을 위해 제공한다.

그린 아일랜드 재단(GIF)은 세이셸에 등록된 NGO로 지속 가능한 개발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06년 설립된 GIF는 개발과 환경 사이의 균형과 잠재적 시너지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주요 활동으로 개인 부문과 국가 환경 프로그램 사이의 간극을 채우는 방법을 모색한다.